

PART 1 그리스도교를 세계종교로 성장시키다

- 사도 바오로

01 그리스도교의 박해자, 유대인 사울

- 그리스-로마 문화권에서 자란 바오로는 철저한 바리사이파 교육을 받은 유대인 사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그리스도교의 박해자로서 성경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확신에 찬 사울은 그 열정 그대로 자신이 박해했던 그리스도교를 지중해 전체에 전파하는 선교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02 신의 음성을 경험한 다마스쿠스 체험

- 바오로의 회개는 '회개(conversion)'라는 말의 본뜻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독선적이던 그는 예수의 자기 계시로 큰 충격을 받았고,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바오로의 회개는 우리가 나중에 다룰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회개 사건의 전형이 되었다.

03 이방인을 위한 열정적인 선교 여행

- 바오로는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넘겨주기 전에,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의 기력을 다할 만큼 온 힘을 기울인, 7년 동안의 끊임없는 선교활동을 두고 그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04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세상의 지혜와 토론하다

- 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내의 하층민들과 여성들을 거쳐 귀족층에까지 퍼져나갔다. 이에 정치가들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몇몇 세속 철학자들도 이에 동조하여 그리스도교를 학문적으로 반박하거나 공격했다. 그리스도교는 이들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성경 인용만이 아니라 철학적 논증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 바오로는 당대 널리 퍼져 있는 세계주의를 표방함으로써 그리스도교를 설파했고, 이는 같은 생각을 지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그에게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사학적 기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부합하게 새로운 종교를 선교하는 토착화의 모범을 발견하게 된다. 바오로의 설교는 자기 입장만을 강요하는 독백이 난무한 현대에 진정한 대화의 기술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준다.

05 온 인류에게 열려 있는 그리스도교의 구원

- 오랫동안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구원이 올 것이라 기대했던 바오로는 자

신의 성령 체험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이를 바탕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자유를 인류에게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 땀, 눈물을 흘려가며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이다.

06 사랑의 힘만이 공동체를 지탱한다

-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믿음과 희망 사랑, 이 세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07 신의 권능은 약자에게 드러난다

고난 극복의 힘

-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궁핍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08 그리스도교를 세계종교로 만든 장본인

서구의 정신적 패러다임 전환

-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 바오로는 또한 예수가 실제로 행했고 말했던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한 최초의 그리스도교 신학자였다. 그가 받았던 바리사이파 교육과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친숙했던 헬레니즘 세계의 관념들도 그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유대교는 이미 보편적 유일신 신앙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종교가 되지 못했지만, 그 뿌리에서 나온 그리스도교는 인류의 보편적 세계종교가 되었다. 모두 바오로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바오로가 없었다면 가톨릭교회도, 그리스-라틴 교부신학도, 그리스도교적 헬레니즘 문화도,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밀라노 칙령도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리스-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교차점에서 탄생한 중세철학의 유구한 역사도 태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PART 2 사상과 학문의 원천, 신플라톤주의

- 플로티노스

01 제국의 쇠퇴기에 나타난 금욕의 철학자

플로티노스의 금욕적 생애

- 플로티노스는 자신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 플로티노스는 자신의 논의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플라톤 철학의 충실한 해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02 유출설,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다

신적 존재에 대한 해명

- 일자는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넘쳐흐를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다 흘러넘쳐 버리지는 않는다. 완전한 것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것에 앞서 있다'는 것과 같다.

03 신을 닮는 것이 곧 인간의 목표다

플로티노스의 참된 인식

- 개별 영혼이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감정적 혼란이나 무절제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는 육체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육체에 종살이하는 영혼은 물에 비친 영상과 사랑에, 나르시스와 같다.

04 신의 세계를 덕으로 따르는 인간

그리스도교 영지주의 비판

- 플로티노스는 신을 닮는 것을 인간의 목표로 규정하면서,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 삶을 그르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는 당시 널리 퍼져있던 다신교적 축제나 예식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 令智主義(gnosis)에 대하여

영지주의에 대한 가톨릭 용서사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의미 : 영지주의 (靈知主義)란 그리스어 Gnosis(그노시스)로 인식, 앎, 지식, 지자(智者), 깨달음 등을 뜻하며, 보통 영지(靈知)라고 일컫는다. 이는 믿음보다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이 구원을 가져오며, 그렇기 때문에 그노시스는 믿음보다 높은 차원의 단계라고 주장한다.

한편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하여 동방 종교의 이원론(二元論)을 흡수하고, 하느님과 세상, 영과 육, 선과 악 등의 대결된 입장에서 고찰하여, 독특한 구원론과 불사론(不死論)을 펼쳤다.

그 대표적인 인물 발렌티노라는 우주를 뛰어넘어, 저편 하늘에는 가장 높으신 성부(聖父)라는 비토스(Bythos: 自生的單子)와 그의 곁에 영원한 침묵, 즉 그분의 생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영지주의 체계는 이원론에 근거하며,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이어질 수 없는 심연의 관계에서, 신과 우주를 고찰한 것에 불과하다.

2. 주장(主張) : 이는 2, 3세기 교회에 파란을 던진 최대의 이단(異端)이다. 이들은 유다교, 플라톤 학설, 그리스도교를 뒤섞어 놓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일반 군중에게는 쉬운 것을 가르쳤으나, 특수한 제자들에게는 참된 지식과 비밀을 계시하셨고, 그 계승자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모든 진리를 인간의 이성만으로 알아낼 수 있기에, 삼위 일체, 강생 구속, 하느님이며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해석은 구구하였다. 특히 그들은 305층의 하늘과 365계급의 천사가 있다는 등 허무 맹랑한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이들은 당시 60여 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대개 우주는 영원한 하느님과 물질로 이루어졌으나, 물질은 악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일치를 원하는 사람은 악(惡)인 물질과 손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선(善)이시기 때문에, 악인 물질 곧 육신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구원을 위해서는 정신이 물질을 벗어나야 하기에, 먼저 육신을 괴롭히고 학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지주의는 예수입장에서 딱히 이단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영으로 왔다는건데?

예수 그도 영을 강조했으므로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영지주의가 이단이 된 이유는 그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건 국가의 통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도마복음이 영지주의 문서죠.

1 삼위일체 믿어요?

믿습니다

2 하나님의 아들을 믿나요?

믿습니다

3 영지주의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4 십자가 믿나요?

믿습니다.

- 플로티노스는 행복한 영혼이란 육체를 잘 다스리면서 자신을 잘 돌보는 영혼이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그는 육체를 인간이 자아실현하는 도구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했다.

05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악의 존재 해명

- 악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선의 본성 혹은 선의 능력에 의거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기에, 그것은 오직 악인 것만은 아니다.

06 인간 내면의 선한 본성을 관조하라

최상 선의 경지

- 플로티노스가 강조한 세계영혼으로 대변되는 정신세계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내면을 들여다볼수 있는 자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07 세상의 불완전함을 숙고하는, 삶의 예술가

진정한 현자의 의미

-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사랑받는 이의 가족에게도 따뜻하다.
우리는 우리 친구의 자녀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다.
이제 모든 영혼은 저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 플로티노스는 자신의 철학적 목표인 신을 닮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관련된 윤리적 성찰을 결코 등한시 할 수 없었다.
- 플로티노스는 윤리적 성찰을 형이상학적 관조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자는 이 지상의 운명을 여유를 가지고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의 변화를 연극의 장면처럼 바라보아야 한다.
- 진정한 행복은 외적 재화가 아니라 철학적 생활방식을 오롯하게 실현하는 '완전한 삶'에 달려 있다.
- 현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연습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 습관화를 통하여 덕이 내면화되면, 마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덕이 있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고대철학의 가르침을 수용했다.

08 플라톤의 계승자, 철학과 신학의 원천이 되다

플로티노스의 의의

- 플로티노스가 제시한 신플라톤주의가 지중해 연안으로 퍼져나갈 무렵, 그리스도교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종교적 성장과 함께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했다.
- 이를 위하여 거쳐야했던 논증과 정의 과정에서는 철학과 수사학에서 빌려온 개념과 범주가 사용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에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자기 철학을 출발점으로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시의 지배적인 철학이던 신플라톤

주의에 의지했다.

- 신프라톤주의 수용한 대표적인 신학자로 동방교회에서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서방교회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꼽을 수 있다.

PART 3 철학의 힘으로 뻗어나간 그리스도교

- 오리게네스

01 순교를 꿈꾸던 청년, 열여덟에 교장이 되다

알렉산드리아에 꽃핀 그리스도교

- 오리게네스는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여 두 벌의 겹옷을 가지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았고, 또 앞날을 걱정하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 했다.

순교자적 삶의 고난

- 우리가 인간들로서 정의를 위한 투쟁을 견딜 때, 우리들은 신과의 평화속에 거하게 됩니다.
- 오리게네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었지만, 그는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필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의에 차 있었으며 생활방식은 철저히 금욕적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애썼으며, 실제로 순교자 못지 않은 삶을 살았다.

03 플라톤 철학으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다.

그리스 철학의 수용과 변형

- 오리게네스는 신에게로의 상승과 성장 및 완성을 강조하면서도, 영성의 최고 단계에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과 타인을 위한 사랑의 행위를 중요시 했다. 즉 그는 플라톤적 사상이 빠질 수 있는 개인적이며 사변적인 영성이나 철학적 신비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성서 중심', 혹은 '그리스도 중심의 특성을 견지했던 것이다.

04 그리스도교 비방을 합리적으로 논박하다

켈수스에 대한 반박

- 오리게네스는 켈수스의 비판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로 그리스도의 기적 및 그리스도인이 늘 실행하는 그리스도교의 진리로 논증했다.
- 오리게네스의 모든 신학적인 답변의 기초를 이룬 것은 '영적 해석'의 시도였다. 이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켈수스의 입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켈수스는 성경, 특히 네 복음서의 모순을 계속 지적했다. 예를 들어, '소위 자기 제자

일당에게 배신당하여 붙잡힌 그 사람을 어떻게 신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인가' 등의 질문을 퍼부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문자나 보고된 사실 배 후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음을 이해했을 때만 가능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이 신적 영감을 받아 집필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믿었고, 이를 토대로 켈수스의 비판에 대해서 반박했다. 오리게네스는 문자적 해석에서는 오류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영적 해석'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 해석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이교도의 비판을 거슬러 유일 신에 대한 선포를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05 영적 해석론을 통한 성경 이해

우의적 해석법 제창

- 우리는 ... 지혜-'신이 세상이 시작되기전 의로운 이들의 영광을 미리 정하셨으며, 이 세상의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 지혜'를 찾아야 한다.
- 유대인들은 예언의 문자들을 매우 배타적으로 고집함으로써 오류에 빠진다. 마르키 온주의와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신을 인간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구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한 분의 신을 악한 창조자와 예수가 선포한 완전한 신으로 구분함으로써 오류에 빠진다.
- 오리게네스에 의하면 성경의 말씀은 문자적 의미, 도덕적 의미, 영적 의미의 삼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구조가 육체와 영혼과 영의 3요소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한 그리스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다양한 사람들은 각자의 수준에 맞게 교화되어야 한다.
- 오리게네스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으므로,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은 모두 그리스도, 그리스도교의 성사, 그리고 교회를 예언한다.
-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구약은 진리의 그림자를 나타내며 진리의 이미지는 신약에서 완전하게 나타난다. 그가 제시한 영적 해석을 통하면 구약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
- 다만 유의할 것은 이것이 곧 자의적 해석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오리게네스는 문자적 의미를 무시하지 않고, 이해의 낮은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교육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의미를 통하여 깊은 이해로 완성되어야 한다.

06 성경 해석의 완벽한 토대를 마련하다

[원리론]에 나타난 신학의 도약

- 모든 ... 율법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모든 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들만 알고 있을 따름이다.
-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오리게네스는 예언서나 복음서를 읽을 때 자신이 생각한 의미를 그리스도의 의미로

전가하지 말 것을 늘 경고했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오리게네스는 성경에서 단순한 지식을 얻으려고도, 교회 신앙의 전통적 길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성경은 교회의 신앙을 설명하고 발전시키는 해석학적 토대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에 특히 관심을 두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은 신을 만나는 곳이며, 그의 영적 해석은 단지 신을 만날 수 있게 구체화하는 방법이었을 뿐이다.

07 사랑의 고통을 통한 신의 구원

그리스도교 신의 고유함

- 그리스도께서 ...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이 고통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고통이란 말인가? 그것은 사랑의 사랑의 고통이다.
-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인간을 향한 연민 때문이다. 그렇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아니 육화하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고통을 몸소 끈질기게 겪으셨다. 만일 그분이 이렇게 육화 이전에 고통받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인간의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인간이 되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은 먼저 고통을 받으셨다. 바로 그래서 이땅에 내려오셔서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이 고통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고통이란 말인가? 그것은 사랑의 고통이다.
-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사랑하면 고통받게 마련이다.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한 평생은 고통받는 인간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연민의 고통은 십자가의 수난에서 절정에 달했다.
- 오리게네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우주의 신인 성부도 용서와 자비가 충만한 신이므로, 역시 늘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고통 앞에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신 역시 신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고통받을 수 없는 신, 전능하고 강력하기만 한 신은 스토아철학의 신일 수는 있을 망정 그리스도인의 신은 될 수 없다.
-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의 고통'이 완성됨을 발견한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는 신으로 드러난다. 이 마지막 수난이란 인간이 겪는 극도의 고통을 함께 겪는 것이며, 이로써 마지막에는 죽음마저 이겨내고, 인간을 구원한 신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빛으로서 역할한다.

08 분서갱유로도 지우지 못한 위대한 신학자

오리게네스의 영향

- 그리스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통한 그리스도교의 진리 탐구와 의미를 갈구했던 오리게네스는 그 열정이 지나치면서 몇 가지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 예를

들어, 오리게네스는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교의상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성자는 성부보다 낮고 성령은 성자보다 낮다는 종속설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만물 복귀설을 주장했는데, 만물은 종말에 자신들의 궁극적 근원으로 되돌아가며 또한 신은 모든 것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자의 구원 행위는 모든 영혼, 심지어 악령과 악마까지도 정화의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신과의 일치에 이르게 한다. 이는 지옥에 관한 전통적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 또한 플라톤주의의 영향도 보인다. 오리게네스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영혼이 신에게서 떨어져 나가, 육체에 갇혀 인간이 되었다는 영혼 선재설과 정령설을 인정했다. 더 나아가 신의 자유로운 창조를 주장하느 정통 교리와 달리 창조를 필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 후대에 일부 교회 회의 단죄에도 불구하고 오리게네스에 대한 존경은 그의 제자들과 후대의 독자들에게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성경의 일부만을 집중적으로 해석했던 다른 주석가들과 달리 그는 성경의 모든 책을 철저하게 주해했다.
- 성경과 관련된 오리게네스의 작품은 고대 그리스도교 주석 전체에 기여했으며, 중세 때 네 가지 성경 의미에 관한 체계적 학설을 마련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또한 그는 많은 제자들과 적대자들이 자신의 이상을 토대로 그리스도교를 더욱 정통적인 형태로 선포할 수 있도록 신학의 학문체계를 수립했다.
- 오리게네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신학자였으며 지성적으로 매우 비범한 인물이었다.

PART 4 인간의 이성으로 꽃피운 사랑의 신학

- 아우구스티누스

01 신과 영혼, 아우구스티누스의 핵심 질문

고뇌로 가득한 성장 과정

- 나는 신과 영혼을 알고자 욕망한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 성경안에서 길을 찾지 못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을 선신과 악신의 영원한 싸움으로 설명하는 마니교에 빠지고 만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의 체계의 모순에 대해서 비판적 질문을 던졌다. '어둠과의 싸움에서 지고의 선한 빛이 힘이 약하고 무능하다는 마니의 주장은 옳은 것일까?' '힘도 없고 비천한, 그러한 신성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등의 물음이었다.
- 마니교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그는 밀라노에서 신플라톤주의와 그리스도교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선다. 그는 이후에 자신을 사로잡았던 주된 관심사가 신과 영혼에 있었다고 고백한다.
- 자기 자신을 찾고자 방황하는 우리 각자도,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범적으로 보여주었

던 것처럼,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기억 속에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02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질서를 인식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

- 그것이 인간을 이루는 다른 것들을 지배하고 명령한다면 그때야말로 인간은 가장 질서 잡힌 것이다. ... 영혼의 이러한 움직임들을 이성이 지배할 때, 질서 잡힌 인간이라고 불려야 한다.
- 그가 참된 삶의 의미라고 보았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보았던 철학적 이론적 사색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신과의 일치와 그 소유'였다.
- 이렇게 인간은 삶의 참된 의미를 감각 사물들로부터 떠나서 신에게로의 전향, 즉 최고 원리와 일치하는 것에서 실현한다. 인간은 신을 자기 삶의 좌표에서 중심으로 삼음으로써 우주에서의 자기 위치를 바로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세계를 '코스모스(cosmos)인 세계'로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03 신이 완벽하다면, 악은 왜 존재하는가?

결핍을 통한 악 해명

- 내가 지금까지 그 근원을 찾아왔던 저 악은 실체가 아닙니다. ... 그러므로 내가 보았고 확실하게 된 것은 ...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참으로 좋다는 사실입니다.
- 마니교에 따르면 악은 물질세계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근절할 수 없는 힘'이다. 마니교의 스승들은 세상의 선은 선한 신으로부터 유래하며, 악은 악한 신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이원론을 주장했다.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완전히 제압하는 능력을 지니지는 못한다. 그것은 악의 원천도 최고 실재자, 즉 신이기 때문이다. 선한 신이 승리하면 세상에는 정의와 평화가, 악한 신이 더 큰 힘을 얻으면 세상에는 불의와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게 된다.
-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니교식 '악의 해명'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노스의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해결하려 했다. 플로티노스에 따르면 악이란 자연의 사물같은 적극적 실체가 아니고 偶有的, 즉 실체에 수반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말하여 악은 자연 사물이 '반드시 지녀야 할 완전성이나 본성의 결핍'인 것이다. 결핍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 선 내지 존재 밖에서 악은 존재할 수 없다.
-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창조주는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사물을 선하게 창조했지만, 이 자연적 본성에 결핍이 생기면서 악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경우 신이 결핍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악에 대한 책임을 신에게 직접적으로 돌릴 이유가

없어진다.

- 신의 힘에 의존하는 피조물은 신과의 근원적인 연결이 손상되면 선한 본성의 결핍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으로 기울어진다. 이것이 바로 악이 실재하는 이유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일차적인 대답이었다.

04 악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책임

자유의지와 악의 관계

- 전능하신 신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했다라는 주장은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느끼는 악과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인간들이 저지른 악의 조성자가 될 수 없으며,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악을 만들어낸 자는 인간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 결국 악의 원인은 금지된 법률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 근원이 '탐욕(cupiditas)', 또는 '자유로운 의지의 잘못된 사용'이라는 것이다.
- 악은 인간이 보다 상위에 있는 영원한 선과 미, 진리를 무시하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생겨났던 것이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인간이 행하는 악의 유일한,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이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 이러한 의지의 잘못된 사용을 신의 섭리 탓으로 돌리려 하는 에보디우스에 맞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신을 외면하고 눈을 돌리는 것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자유의지를 준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가 결여된 동물보다, 비록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더욱 훌륭한 존재의 단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결코 인간의 고통과 악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에게 준 자유라는 소중한 선물에 의하여 악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고통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05 신을 소유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

-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거나, 원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이들은 비참하다. 따라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잘못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 오직 '신'만이 소유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신이야말로 기타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된 영원한 존재로서 불변하고 불멸하는 것이요, 또한 만물의 창조자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므로 우리 존재와도 필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 신을 소유하려면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즉 내면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
-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과 지혜를 동일시하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따라, 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마음에 지혜를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음이 바른 절도를 가짐으로써 스스로의 참된 진리를 보유하는 동시에 진리 자체에 참여하게 되면 곧 신을 소유하게 된다.
-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궁극의 행복은 지적인 것만도 의지적인 것만도 아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야 가게 될, 천상 예루살렘에서 얻게 되는 진리로 말미암은 참행복, 지복직관(至福直觀, visio beatifica)에 이르러서야 도달하게 된다.

06 존재의 가치에 따른 사랑의 윤리학

사랑의 두 종류, 향유와 사용

-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 윤리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사물들의 가치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질서를 이해하는 철학적 지혜와 이에 따라 올바르게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 그는 윤리의 핵심을 의지의 작용, 그중에서도 사랑에서 찾았다.
- 그러나 스토커나 부모의 지나친 집착처럼, 행위자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는 모든 행위가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사물을 사랑하는 태도에 따라 두 종류의 사랑을 구분한다. 즉 사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사랑하는 것을 ‘향유(frui)’라고 부르고, 그 외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물을 사랑하는 것을 ‘사용’이라고 한다.
-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할 존재의 질서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는 신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향유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 인간들은 삶속에서 가치 질서의 혼란을 자주 만난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일을 종종 벌인다. 종교를 빙자한 수많은 전쟁이야말로 신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 또한 일부 대형 교회가 세습 및 재산 분할 등으로 분쟁에 빠지게 된다면 과연 자신들이 신을 향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예와 재산 등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신을 사용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반성해 보아야 하난.
- 이와 같은 가치나 윤리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해야 할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질서를 요구했던 것이다.

07 신국론, 사랑으로 선포한 신의 나라

사랑으로 구분되는 두 나라

- 두 사랑이 있으니 하나는 순수하고 하나는 불순하다.
 하나는 '사회적 사랑'이요
 하나는 '사사로운 사랑'이다. ...
 하나는 신에게 복속하고 하나는 신에게 반역한다.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랑은 선한 자들에게 갇히고 한 사랑은 악한 자들에게 갇들어서 두 나라를 가른다.
- '사사로운 사랑'이란 그 나라 국민의 일부만을 사랑하는 사랑, 타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과 자신 사이의 일대일 관계에만 집착하는 사랑이다. 이는 사회의 분열, 온갖 차별과 편중, 오만과 탐욕과 인색만을 키울 뿐이다. 반면 '사회적 사랑'은 공동선의 사랑, 화해와 통일과 공평을 도모하는 사랑이다.

08 정의가 없는 국가란 거대한 강도떼다

신국론의 참된 평화

- 천상 평화야말로 참으로 평화이며, 적어도 이성적 피조물은 이것만을 평화로 여기고 평화로 불러야 한다.
 다시 말하여 신을 향유하고 신 안에서 서로를 향유하는 사회야말로 가장 질서 있고 가장 조화로운 사회이다.
- 현자라면 의로운 전쟁과 불의한 전쟁을 논구할 것이 아니라 불의와 충돌의 근본 원인인 '지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서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야만 한다.

PART 5 최후의 로마인, 죽음 앞에서 철학의 신에게 묻다

- 보에티우스

01 하루아침에 사형수가 된 유력 가문의 풍운아

보에티우스 삶의 질곡

- 변덕스러운 행운이 날 속여 덧없는 행복을 주었을 때부터 슬픔의 시간은 이미 내게 가까이 와 있었노라. ...
 오 나의 벗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은 때마다 나를 행복하다고 찬양했던가.
 이렇게 쓰러진 나는 결코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었거늘

02 그리스 철학의 유산을 지킨, 서로마의 교사

고대철학 번역 기획

- 내가 그리스의 지혜와 학예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도덕을 가르치는 일 또한 충분히 나의 시민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것이다.

03 철학은 운명 앞에 답을 줄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나눈 철학과의 대화

- 왜 이 질서가 거꾸로 되었습니까? 실제로는 악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은 착한 사람들이 받고, 덕을 지닌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보상은 악인들이 가로채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가 나에게서는 정말로 놀랍게만 여겨집니다.
- 특이한 것은 보에티우스가 죽음 앞에서도 그가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교에서 위안을 찾지 않고, 궁극적으로 '철학'에서 위안을 찾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 [철학의 위안]에서는 인간의 행복과 운명, 신의 섭리와 우연, 신의 예지와 필연성과 자유등 인생의 궁극적 문제가 제기되는데, 보에티우스는 이를 철학적으로 논증하며 자신과 인간의 파국을 극복한다. 이러한 극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04 비록 행운을 잃을지라도 행복은 가능하다

최고선으로서의 신과의 합일

- 너는 이전 행운에 대한 애착과 갈망으로 지금 기진맥진하여 있다. ...
- 만일 네가 행복의 본성과 그 특성, 그 가치를 기억한다면, 네가 그것 안에서 아무런 아름다운 것도 가지지 않았음과 또 그 행복이 떠나갔을 때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
- 행복은 겉으로 나타나는 재물이나 지위, 권세, 명예, 쾌락에 있지 않고 영원한 선에 있다. 행복을 향하여 인간이 노력하는 까닭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선, 곧 완전함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 모든 세속의 선은 선의 유한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 재물이나 지위, 권세, 명예, 쾌락은 그 자체로 고통을 불러일으키며 쉽게 잃을 수 있지만, 진리를 찾는 인간은 완벽한 초인간적인 영광의 상황으로 자신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성찰은 참된 행복이 최고선이신 신에게 있다는 사실로 연결된다. 완전한 선은 신뿐이고, 다른 모든 불완전한 선이 여기에 참여한다. 따라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은 신을 찾는 노력이며, 신만이 참된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
- 철학의 여신이 제시한 논리적 답변은 악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과 불행에 관한 인간의 평가는 신의 시각에서 볼 때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악은 참된 선, 곧 신에게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보기와 달리 악은 늘 진리 안에서 불행하다.

05 인간의 운명에서 신의 섭리로

자유와 섭리의 공존

- 섭리는 어떤 이들에게 어려운 시련을 겪게 하니
이것은 그들의 영혼의 덕을 인내와 습관과 단련으로써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것을 순전히 악 때문에 하는 일은 결코 없고, 선을 찾지만 오류로 인하여 정도에서 이탈하고 마는 것이다.
- 철학의 여신은 선한 이들이 당하는 고통에 단순히 별의 의미만이 아니라, 악을 막

아주는 기능과 교육 및 훈련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한다.

- 그리스도교적 섭리 이해는 불운에 대해서조차 무의미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조차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인정하는 한 이 또한 감사와 기도의 대상이 된다.

06 신의 존재로 운명의 고통을 극복하다

인간의 자유와 신의 예지

- 신은 모든 것을 자신의 영원한 현재 안에 인식하는 것이다. ...
신의 직관은, ... 스스로 변함없이 머무르면서
네 변화를 선행하여 한 번에 파악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
- 결국 그는 참된 행복을 찾는 인간의 노력은 악덕에 대한 투쟁, 덕에 대한 장려,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는 신을 끊임없이 찾는 데에 있다고 결론 내린다.
- 이렇게 보에티우스는 운명을 넘어서는 길이란 운명의 마지막 실타래를 섭리적 연관 하에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07 신학적 관심에서 탄생한 ‘인격’의 정의

인간 존엄성의 기반

- ‘인격’이란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이다.

08 고독 속에서 탄생한 최초의 스콜라철학자

원대한 모범으로 남은 미완의 계획

- 신의 실체는 아무런 질료도 없는 단순한 형상이다.
따라서 하나인 것이요. 있는 바의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있는 바의 것이 아니다.
-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자는 자기 스스로 존재를 지닌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인 신의 섭리에 따라 존재를 지닐 뿐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원리를 이해할 때, 인간의 고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이 제시될 수 있다.
- 보에티우스는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적 희망에서 영감은 받았더라도, 답변만은 온전히 철학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악인들의 성공 앞에서 좌절하기 쉬운 선한 사람들에게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희망을 찾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